법화경, 아뇩보리 원만각 얻어

수행을 하는 것이고, 부처님 본뜻을 훈습하는 것이 보살이야.”

스님은 “옛날 사람은 식견이 부족했지만 업장이 순박해 지혜의 눈을 쉽게 떴다. 그래서 견성한 선지식이 많았다”면서 “현대인은 승속을 막론하고 세상에 대한 인지 정도가 연각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용 스님은 “조사스님들을 비롯해, 상대성이론을 주장한 아인슈타인, 무위사상을 설파한 노자·장자,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 공자, 예수 등이 바로 연각”이라고 말했다.

“적벽에서 바람을 불게 해 조조의 대군을 물리쳤다는 제갈공명도 연각이야. 제갈공명이 바람을 불게 한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수리로 해석한 것 뿐이거든. 연각이 되면 수리에 밝아져.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결국 과거를 계산해 통계를 얻는 작업이고.”

금용 스님은 “출가자들이 수행 정도를 착각하는 근본 원인은 자신의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고 “재가의 인격자라 불리는 사람들도 자기 수준을 몰라 방황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사람들이 자기 수준을 모르는 것을 ‘업장이 두텁기 때문’으로 봤다. 아는 것이 많이 쌓이다 보니 결국 병이 되고, 아는 것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용 스님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현실에 도움을 줄 수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화경>을 지혜의 창고라고 하는데, 그 지혜가 현실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봤어. 내가 총무원 생활을 시작했을 때 가진 문제가 △불교사상의 정립 △남북통일 △환경문제 등인데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거의 다 풀렸지.”

산중에서 아이티 지진 참사 소식을 들으셨는지 스님은 지진을 예로 들었다.

“지진이 일어나면 5000~5만명이 죽거나 다치는데 어떻게 하면 인명 피해를 줄일까? 이 방법이 지혜 아니겠어? 내가 지리산에 있을 때 TV에서 일본 고베 지진을 봤는데 지진도 충분히 미리 알 수 있어.”

금용 스님은 보살이었다. 중생이 아프면 함께 아픈. 스님의 입에서 “고베 지진…” 말이 나오는 순간 눈가에 이슬도 함께 맺혔다.

스님이 (지혜로써) 제안한 지진 피해 예방법은 의외로 쉬운 방법이었다.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마다 시추공을 뚫고 일정간격으로 감지기를 설치하자는 것. 지중부에서 시작되는 지진이 지표까지 전달되려면 수시간이 걸리니 미리 감지하면 사람들을 대피시킬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용 스님은 “남북 평화통일은 <반야심경>의 실천으로 가능하다”고도 귀띔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色卽是空空卽是色)”이니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집착할 것 없이 서로의 장점만 수용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그 실천이 쉽지 않은 이유를 스님은 미국 등 강대국의 견제 때문이라 진단했다. “한국 위정자들이 강대국에 기대 배부른 돼지가 되려 하기 때문이다. 주체성을 지키려면 방어 개념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스님은 “고구려는 무(武)에 치중해 강했지만 멸망했고, 조선은 문(文)에 치중해 외침이 그치지 않았다”면서 “한국의 미래는 문무를 중도적 지혜로 수용한 교육과 사회운영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나그네는 궁금했다. “스님, 좋은 뜻을 펼칠 생각을 왜 안하시나요?”

“경전에 부처님이 ‘누실될까 염려된다’고 설한 부분이 있어. 이 경구를 한 스님이 선정에 들어 살펴보니 ‘누실’은 쉬운 말로 ‘설치다 피본다’는 말이라고 하더군. 연각이었던 예수가 조지의 낮은 깨달음을 갖고 설치다가 피 봤잖아? 하하하”

금용 스님의 지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진심은 아닌 듯 했다. 나그네가 조금 더 물었다. 스님이 말했다.

“제바달다 탓에 재출가한 부처님은 10년간 원만각 수행을 하셨지. 설법을 해도 대중이 알아듣지를 못하니 부처님도 ‘빨리 죽어버릴까’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고. 중생들이 듣고 싶어하지도 않는데 괜히 말해봐야 소용 없잖아? 수행·정진하다 인연되면 뭔가 이루는 것이고, 아님 다음 생으로 미룰 생각이야.”

나그네는 30년 재야생활을 통해 세상을 달관한 선지식에게서 모난 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왔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84. 30년 美 포교로 구도행, 도안 스님

도안 스님은 30여 년간 미국에서 포교해 온 해외포교의 1세대로 한인 사회를 하나로 아우르는 구심점이었다. 스님은 초기 미국 이주역사에서 불교를 넘어 한인 사회 전체를 통합하고, 종교간 화해를 위해 노력해 온 큰 스승이었다.

1958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도안 스님은 1970년부터 1982년까지 녹야원 주지를 지냈으며, 이 기간 중인 1975년 로스앤젤레스에 관음사를 개원했다.

도안 스님이 미국행에 올랐을 당시에는 국내에서 해외포교의 중요성이나 재미교포 불자들의 신행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도안 스님의 하루는 항상 바빴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저녁 10시가 넘도록 잠시도 자리에 앉을 틈이 없었다.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그 동분서주의 모습이 매우 안타깝게 여겨졌지만 초창기 미국불교개척자로서는 어찌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스님은 1975년 LA관음사 주지로 부임한 뒤 10여 년 간 각고의 노력 끝에 1000평 규모의 유대인 교회를 매입해 법당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문화원을 개설했으며, 어린이 포교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져 로스앤젤레스 연화어린이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님은 LA 다운타운의 유대인 교회를 인수하면서 경제적 압박을 많이 받았다. 스님의 광범위한 포교활동에 비해 들어오는 수입이 너무 적었다. 그러나 미국불자교민들의 열성어린 후원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그 역경을 이겨냈다.

스님은 고난에도 정진과 정진을 거듭하며 5만평 부지에 달하는 불교 유치원과 도량을 조성했고 미 교포와 미국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불교대학도 설립했다.

이중 2003년 스님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뉴욕 맨해튼에 건립한 ‘한미 불교문화원’은 한국불교를 미국 주류사회에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터전이 됐다. ‘한미 불교문화원’의 건립은 미국 주류사회의 불교에 대한 관심에도 티베트 일본 중국불교 등에 비해 한국불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400여평 규모의 문화원에는 참선과 다도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스님은 1964년 운문 스님과 함께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를 결성했고, 이후 동산불교대학 지부를 설립해 많은 지성불자들을 양성해 교민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었다.

또 스님은 어린이·청소년·청년 포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스님은 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불교봉사회, 한글학교, 어린이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불심의 씨앗을 뿌렸다,

특히 스님은 남북불교교류에도 큰 역할을 했다. 스님은 불교평화문제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하와이 대원 스님과 함께 민족통일운동을 이끌었다. 1991년 10월 29일 미국 LA에서 남북한 및 해외 동포 불교 지도자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봉행한 ‘조국평화통일 기원 불교도 합동법회’는 도안 스님이 없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 이 법회는 남북 불교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스님이 한국에 있을 때는 적조암 주지로 계시면서 동국대학교에서 학업에 정성을 다 했다. 스님은 신도들의 애환사를 빠짐없이 살피며 보살행을 실천했다.

도안 스님의 원력이 서려있는 LA관음사에서 서양불자들이 참선 삼매에 빠져있다.

5만평 달하는 도량·유치원 조성…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관심

통일운동과 미국 포교, 재미 한인 사회 통합 등의 선봉에 섰던 도안 스님의 마지막 바람은 역시 평화통일과 한인 사회의 화합이었다.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미국포교에 매진한 도안 스님은 2006년 8월 28일 세수 70세로 갑작스럽게 입적했다.

2001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대수술 끝에 재활 했지만 종양이 폐와 간으로 전이된 것이 원인이었다.

당시 큰스승을 잃은 미국 한인 사회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불교와 세계중생을 위해 끊임없이 구도행을 펼친 스님의 위법망구 정신은 교민들 사이에 살아, 미주불교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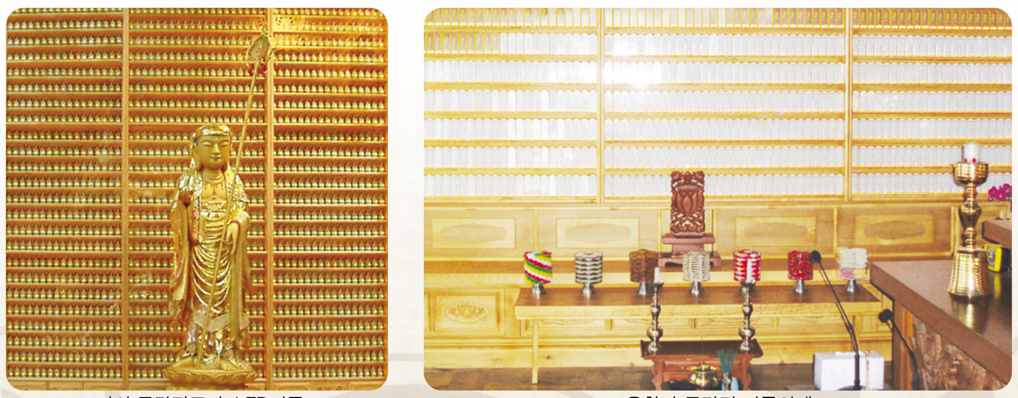
210만 미주 한인 사회가 고난의 타향살이에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곁에 밝은 등불로써 남은 도안 스님의 가르침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